

부모의 예절교육과 아동의 예절실천에 관한 연구

Parents' Courtesy Education and Child's Courtesy Practice

최영희·박공주*

수원대 가정관리학과·농촌생활연구소 생활환경과*

Choi, Young Hee · Park, Kong Ju*

Dept. of Home Management, The university of Suwon ·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Abstract

Korea, once called a nation of Oriental Courtesy has been tinged with the confusion of the view of value and the loss of humanity.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seen as impolite. It has been accepted that urban children are more impolite than rural childre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the courtesy between urban and rural children. Also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courtesy education and the children's courtesy practice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1. Parents emphasized the education of the courtesy in school life, and neglected the education of the basic courtesy. Urban parents were more eager to educate the courtesy in school life than rural parents.
2. Children performed the courtesy in school life best, and basic courtesy worst. Rural children practiced courtesy better than urban children.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ourtesy education and child's courtesy practice.

I. 서 론

예절이란 禮儀凡節을 의미하는 것으로 禮義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요, 凡節은 일상생활의 모든 절차와 모든 일이다”(새우리 말큰사전, 1990)라고 풀이되어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예절이다. 禮란 원래 공경을 근본으로 하고 친화를 그 요지로 하여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에 부합되는 언어와 동작을 禮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마음과 행실이 서로 융합된 것을 말한다(최재선, 1984).

사람에게는 恭敬之心의 德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禮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권오순, 1982). 타인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참된 마음, 서로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사랑과 우애의 情意를 자연스럽게 놓으며 이러한 마음이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절이다(정몽화, 1982).

예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능에 따라 본질이 다르다(한국여성교양학회, 1991). 스스로 자신의 모든 면을 바르게 닦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할 때의 예절은 자기자신에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때의 본질은 정성

(誠)스러운 마음인 자기수양이고, 남과 어울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 남에게 활용되는 기능을 가진 예절의 본질은 공경(敬)하고 사랑(愛)하는 것이다. 정성이란 자기를 속임이 없는 양심이고, 공경과 사랑은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애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면을 행하여 정성을 가다듬고 타인에게는 애정어린 깊은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예절의 깊은 본질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는 곧 가정, 사회, 국가 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을 童蒙으로 보았다. 동물은 산기슭을 흐르는 물의 형태를 비유한 말(류점숙, 1991)로써, 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큰 강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듯이, 아동이 비록 무지몽매하기는 하나 좋은 가르침에 의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르쳐야 하며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에서도 어린시절의 교육이 곧 성인 행동의 기초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다. 九容-발모양은 무겁게, 손모양은 공손하게, 눈모양은 단정하게, 입모양은 신중하게, 목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모양은 곧게, 숨쉬기는 고르게,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기색은 엄숙하게-으로 설명되는 바른자세를 갖도록하여 안정된 행동을 보이도록 교육하였다(사소절, 동규편). 바른 몸가짐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자신을 통제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였다. 대인관계는 孝를 기본으로하여 다른사람에 대한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도록 하였다.

현대의 예절교육은 자율적인 인격형성의 육성,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며(박민규, 1994),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분별하여 알맞는 언어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착한 마음씨와 바른 행동으로 질서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하며, 예절의 기본 정신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다(최재선, 1984). 시대의 변화로 인해 예절교육 목표의 표현은 달라졌으나 기본정신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는

예절을 지킬 줄 모르면 배운 것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까지 간주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생활여건이 바뀌게 되면서 인간의 의식과 가치기준도 달라지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예절을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라 비판하고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라 지적하며 외면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일제의 한국문화 말살정책, 한국전쟁 때의 피난생활, 군사문화의 장기화와 민족의식이 결여된 교육과 정선택, 그리고 산업사회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예절은 붕괴되었다(최기호, 1995). 더구나 급격한 산업화의 물질문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의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만을 최고로 간주하고 선택하게 되었으며, 선조들이 중시했던 예절은 형식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소홀히하였다.

그러나 본래 예절은 그 형식이나 외면보다도 내면을 중시하였다(성백효, 1994). 인간과 인간사이에 지켜여야 할 윤리도덕인 ‘敬’을 중시하였고, 예절은 그 敬의 표현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절을 형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보고 일찍부터 아동들에게 예절교육을 시작하였다.

가정은 예절의 기초를 익히고 실천하는 수련도장이며, 예를 체질화, 내면화시키는 곳이며, 또한 이를 가치화, 습관화시키는 곳이므로 가정은 예절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하다(충남교육청, 1992). Sprangler(1964)는 가정은 정서 관계와 관습관계를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인간의 삶은 가정을 핵으로 하여 동심원적 확대를 해가는 곳이라고 하여, 예절교육과 관련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예절교육은 일찍부터 가정에서 실시해야 하나, 현대에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한다(최기호, 1995).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예절이 약화되어감을 보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예절의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아동의 예절실천이 약화되어가는 것을 아동의 책임으로만 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교육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동이 예절에 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재선(1984)은 대도시 초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설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교육시킨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예절생활이 문란한 이유를,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중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킨 결과, 예절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은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예절에 대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본 자녀의 태도도 크게 변화하였다(김정애, 1992). 이는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은 가정의 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수가 7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보다 3명 이하로 적은 경우에 중학생의 경로효친과 식사예절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높았다(김정애, 1992). 같은 연구에서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예절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높았다. 가족수가 적은 경우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의 학생이 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조부모가 있으나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예절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도시와 농촌간에 예절에 대한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임동일, 1986). 농촌 중학생보다 도시 중학생이 부모에게 예절교육을 더 자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외출할 때의 인사예절, 경조사에 대한 인사말, 가정에서의 식사예절에서 농촌 학생보다 도시 학생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시화, 현대화되어가는 사회일수록 전통예절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그의 연구결과와 같이 농촌 아동보다 도시 아동이 예절을 더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그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에 예절 교육과 예절실천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의 환경적 변인에 따른 비교도 시도하였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절교육을 비교하였다. 어머니가 예절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임동일, 1986)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예절교육이나 아동의 예절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예절교육이 아동의 예절실천과 어느정도의 상관을 보이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1. 부모의 예절교육정도

1-1. 예절영역별(기본예절, 가정생활예절, 학교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 교육정도는 어떠한가?

1-2. 환경적 변인(농촌과 도시, 부모의 성별, 주부의 취업여부, 노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예절교육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예절실천도

2-1. 예절영역별(기본예절, 가정생활예절, 학교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 실천정도는 어떠한가?

2-2. 환경적 변인(농촌과 도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예절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 실천도와의 상관관계

3-1. 예절영역별(기본예절, 가정생활예절, 학교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로 교육정도와 실천 정도와의 상관은 어느정도인가?

3-2. 예절내용별로 교육정도와 실천정도와의 상관은 어느정도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개교를, 농촌은 전남의 면단위 이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지역 아동과 부모에게 각각 250부씩 500부, 농촌지역 아동과 부모에게 각각 250부씩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것은 도시지역 443부, 농촌지역 470부였다. 이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아동과

부모 어느 한 쪽만 응답한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가족원이 응답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아동 및 부모 각각 216부, 농촌지역 아동 및 부모 각각 232부, 총 448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절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예절의 종류를 기본예절영역, 가정생활예절영역, 학교생활예절영역, 그리고 사회생활예절영역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예절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예절

조판일(1994)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예절로 이닦기, 효도, 일 도와드리기, 식사하기, 물건다루기, 집안에서의 몸가짐 등을 들고 있으며, 성균관(1993)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에서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걸을 때의 자세, 물건다루기, 대화하기, 절하기 등을 기본예절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것은 小節 '童規'편(이애선, 1980)에 있는 자세, 용의, 인사, 언행에 관한 예절이며, 小學의 '敬身'편(이정덕과 송순, 1993)의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에 대한 예절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생활예절

장경선(1993)이 살펴본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의 내용은 어른을 모시는 예절과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예절이었고, 성균관(1994)에서는 형제간의 사랑과 예절, 가족·친척관계 예절, 친척의 호칭, 가정의례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한국여성교양학회(1991)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호칭, 존수와 친족관계, 가족간의 예절을 가정생활예절이라 하였다. 즉, 가정생활 예절 영역은 가족간의 예절, 친척관계, 어른 모시기의 내용을 일컫는다.

3) 학교생활예절

성균관(1993)에서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선생과 학생에 대한 예절, 선생님을 모시는 예절, 제자에 대한 예절, 동문·선후배간의 예절이라고 보았다. 박민규(1994)는 인간관계 예절, 학습할 때의 예절, 규칙과 질서, 학교에

서의 식사예절, 회의예절을 학교생활예절로 보았고, 조판일(1994)은 학교가기, 수업태도, 선생님께 대한 예절, 회의예절, 양보와 협동, 규칙지키기, 친구 사귀기 등을 들었다. 요약하면 학교생활예절은 선생님·제자·선후배간의 예절과 학교사랑, 학교에서의 공통예절 등을 담고 있다.

4) 사회생활예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의 내용으로 장경선(1993)은 이웃간의 예절, 차를 이용할 때의 예절, 길에서의 예절, 공공시설 예절 등을 들었고, 성균관(1993)에서는 소개와 인사, 초대와 방문, 모임에 대한 예절, 경조에 대한 예절, 공중도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여성교양학회(1991)에서는 상호소개, 방문과 영접, 선물예절, 여행예절, 공중예절 등으로 나누었고, 박민규(1994)는 대인관계, 공중도덕, 의사소통의 3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생활예절에는 방문과 접대예절, 공중도덕, 대인관계 및 경조에 관한 예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마다 8문항씩 총 32문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가정의 환경적 변인으로 지역, 부모와 아동의 성별, 주부의 취업유무,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포함하였다. 서울과 수원 거주 초등학생 및 부모 각각 15명씩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장의 수정작업을 거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의 내용은 같으나 부모용은 교육정도로, 아동용은 실천정도로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정도와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알기 위해 Cronbach α 를 구하였다. 부모의 예절교육 정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90이었고 아동의 예절실천 정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77로써 양호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구성은 도시 48.2%, 농촌 51.8%였고,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가 40.4%,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가 59.6%로써 어머니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주부취업상태는 취업주부가 57.6%로 비취업주부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비동거가 70.5%로 많았다. 아동은 남학생 49.8%, 여학생 50.2%로 거의 비슷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환경적 특성

(N = 448)

변 인	구 分	N(%)
지 역	도 시	216(48.2)
	농 촌	232(51.8)
노부모	동 거	132(29.5)
	비동거	316(70.5)
동거상태	취 업	258(57.6)
	비취업	190(42.4)
성 별	부 모	181(40.4)
	아 동	267(59.6)
	남 여	223(49.8)
		225(50.2)

1. 부모의 예절교육정도

1) 예절영역별 부모의 교육정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예절교육 정도는 3.18로써 비교적 높았고, 예절영역별 교육정도는 학교생활예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예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절영역별로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과 미약하게 교육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본예절에서는 '바르게 걷는 자세와 신발 바르게 신기'(3.54)를 항상 교육하고 있었으며 '바르게 앉아 공부하는 습관'(2.41)은 충분히 교육하고 있지 못하였다. 가정생활예절에서 '이닦기'(3.52)는 교육이 잘되고 있는 반면 '찾아오신 손님 신발 정리하기'(2.35)는 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 학교생활예절에서 '하교후 곧바로 집에 오기'(3.70)는 교육정도가 높았고 '학교교사·교훈 의우기'(2.67)는 잘되지 않았다. 사회생활예절에서 '이웃어른께 공손히 인사하기'(3.62)는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었으나 '집밖 꿀목길 청소하기'(1.93)는 교육정도가 매우 낮았다.

<표 2> 주체별 부모의 교육정도

(N=448)

구	분	평균 (0~4점)	표준 편차
	서있는 자세	2.73	.96
	어른과 함께 앉을 때의 자세	2.74	1.96
	바르게 앉아 공부하는 습관	2.41	1.07
	바르게 걷는 자세와 신발 바	3.54	.78
기본	트게 신기		
예절	방·화장실 출입할 때의 자세	3.08	.94
	칼·송곳 등 물건을 남에게 줄 때의 바른태도	3.50	.71
	부모님께 존대말 사용하기	3.28	.90
	집안 어른께 아침인사하기	2.62	1.10
	소 계 (평균)	2.99	.53
	외출 시 반드시 웃어른께 말 씀드리기	3.43	.76
	심부름하는 올바른 태도	3.47	.65
	음식먹을 때 부모형제 끓 쟁 겨놓고 먹기	3.27	.85
가정	자기방 이부자리 개기	3.04	1.07
생활	이닦기	3.52	.75
예절	어른과 함께 하는 식사예절	3.20	.93
	찾아오신 손님 신발정리하기	2.35	1.07
	자기 옷 옮바로 입고 정리정돈하기	3.34	.80
	소 계 (평균)	3.22	.49
	선생님 흥·별명 부르지 않기	3.36	.94
	학교 준비물 잘챙겨가기	3.36	.77
	학교 교사·교훈 모두 외우기	2.67	.96
학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3.51	.69
생활	친구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기	3.01	.91
예절	도시락의 음식 남기지 않기	3.27	.95
	하교 후 끈바로 집에 오기	3.70	.61
	공책 등 학용품 아껴쓰기	3.58	.69
	소 계 (평균)	3.31	.50
	집에 온 친구를 어른께 옮바로 소개하기	3.18	.82
	이웃어른께 공손히 인사하기	3.62	.60
	집밖 골목길 청소하기	1.93	1.08
	버스·전철 속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하지않기	3.41	.80
사회	공중목욕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하지않기	3.37	.84
생활	친구와 약속 잘 지키기	3.43	.80
예절	차안에서 노인께 자리 양보하기	3.53	.72
	손님초대시 정중히 맞아들이기	3.33	.81
	소 계 (평균)	3.23	.49
합계	(평균)	3.18	.42

2) 사회적 변인에 따른 예절교육정도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부모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별로 자녀에 대한 예절교육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t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환경적 변인별 부모의 예절교육정도
(N=448)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
		(0~4점)		
지 역	기 본 예 절	도시 2.97 농촌 2.99	.50 .54	-.42
	가정 생활 예 절	도시 3.20 농촌 3.22	.45 .52	-.56
	학 교 생활 예 절	도시 3.35 농촌 3.25	.47 .52	2.07*
	사 회 생활 예 절	도시 3.24 농촌 3.24	.45 .52	.73
	기 본 예 절	부 2.92 모 3.03	.52 .52	-2.11*
	가정 생활 예 절	부 3.15 모 3.25	.49 .49	-2.15*
성 별	학 교 생활 예 절	부 3.23 모 3.35	.54 .46	-2.54*
	사 회 생활 예 절	부 3.20 모 3.24	.49 .48	-0.84
	기 본 예 절	취업 2.94 비취업 3.05	.52 .52	-2.15*
	가정 생활 예 절	취업 3.21 비취업 3.22	.49 .48	-0.12
	학 교 생활 예 절	취업 3.27 비취업 3.34	.51 .48	-1.58
	사 회 생활 예 절	취업 3.20 비취업 3.25	.50 .47	-1.11
주부 취업 여부	기 본 예 절	동거 2.97 비동거 2.99	.52 .52	-0.39
	가정 생활 예 절	동거 3.18 비동거 3.22	.50 .48	-0.75
	학 교 생활 예 절	동거 3.21 비동거 3.34	.55 .47	-2.45*
	사 회 생활 예 절	동거 3.18 비동거 3.24	.54 .46	-1.17

* p<.05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4개의 예절영역 중 학교생활예절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의 부모가 농촌의 부모보다 학교생활예절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예절교육정도에 차이가 있었

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기본예절, 가정생활예절, 학교생활예절의 세영역에서 예절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임동일, 198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주부의 취업 및 비취업에 따른 예절교육정도의 차이는 기본예절 영역에서만 나타났는데,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자녀의 예절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었고 다른영역에서의 교육정도는 취업, 비취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주부가 아동의 기본예절 교육에 소홀함을 시사한다.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예절교육정도의 차이는 오직 학교생활예절 영역에서만 나타났는데,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학교생활예절교육을 더 강조하여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노부모에게 손자녀의 예절교육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조부모가 예절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약 10% 정도였던 것(임동일, 1986)으로 미루어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에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정에서보다 부모가 예절교육을 소홀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예절실천도

1) 예절영역별 아동의 실천정도

아동이 예절을 실천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학교생활예절을 실천하는 정도(2.93)가 4개의 예절영역 중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영역은 기본예절영역(2.63)이었다. 구체적인 예절 내용과 실천정도를 보면 <표 4>와 같다.

기본예절 중에서 '칼이나 송곳 등 물건을 남에게 줄 때의 바른 태도'(3.44)는 아동이 매우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개인차도 적은것(표준편차 .84)으로 나타났다. '어른과 함께 앉을 때의 자세'(2.17)나 '집안 어른께 아침 인사하기'(2.19)는 잘 실천되고 있지 않은 기본예절이었다. 가정생활예절에서 '심부름하는 올바른 태도'(3.01)는 잘 지키고 있었으나 '찾아오신 손님 신발 정리하기'(2.04)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 학교생활에서 '학교 후 곧바로 집에 오기'(3.36)은 실천도가 높았으며 '도시락의 음식 남기지 않기'(2.69)는 실천도가 낮았다. 사회생활예절에서 '손님초대시 정중히 맞아들이

기'(3.49)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집밖 골목길 청소하기'(1.07)는 거의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

<표 4> 예절영역별 아동의 예절실천도
(N=488)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0~4점)	
기본 예절	서있는 자세	2.63	.79	
	어른과 함께 앉을 때의 자세	2.17	1.16	
	바르게 앉아 공부하는 습관	2.27	1.04	
	바르게 걷는 자세와 신발 바르게 신기	3.16	1.15	
	방·화장실 출입할 때의 자세	2.75	1.20	
	칼·송곳 등 물건을 남에게 줄 때의 바른태도	3.44	.84	
	부모님께 존대말 사용하기	2.46	1.16	
	집안 어른께 아침 인사하기	2.19	1.39	
	소 계 (평균)	2.63	.58	
가정 생활 예절	외출 시 반드시 웃어른께 말씀 드리기	2.83	1.14	
	심부름하는 올바른 태도	3.01	.94	
	음식먹을 때 부모형제 둘 쟁겨 놓고 먹기	2.65	1.13	
	자기방 이부자리 개기	2.49	1.30	
	이닦기	2.97	.94	
	어른과 함께 하는 식사 예절	2.62	1.19	
	찾아오신 손님 신발정리 하기	2.04	1.30	
	자기 옷 옮바로 입고 정리정돈 하기	2.61	1.10	
	소 계 (평균)	2.65	.65	
학교 생활 예절	선생님 흉·별명 부르지 않기	2.96	1.20	
	학교 준비물 잘챙겨가기	2.87	.88	
	학교 교사·교훈 모두 외우기	3.04	1.11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2.88	.82	
	친구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기	2.82	1.07	
	도시락의 음식 남기지 않기	2.69	1.01	
	하교후 곧바로 집에 오기	3.36	.93	
	공책 등 학용품 아껴쓰기	2.83	1.12	
	소 계 (평균)	2.93	.49	
사회 생활 예절	집에 온 친구를 어른께 옮바로 소개하기	3.00	1.12	
	이웃어른께 공손히 인사하기	3.22	.93	
	집밖 골목길 청소하기	1.07	1.19	
	버스·전철 속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하지 않기	2.99	1.22	
	공중목욕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하지 않기	3.16	1.20	
	친구와 약속 잘 지키기	2.73	.87	
	차안에서 노인께 자리 양보하기	2.80	1.09	
	손님초대시 정중히 맞아 들어이기	3.49	.78	
	소 계 (평균)	2.81	.55	
	합 계 (평균)	2.76	.45	

2) 사회적 변인에 따른 예절실천정도

아동의 거주지역,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예절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환경적 변인별 아동의 예절실천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
			(0~4점)		
지 역	기본예절	도시	2.56	.54	-2.51*
		농촌	2.69	.60	
	가정생활 예 절	도시	2.60	.63	-1.42
		농촌	2.69	.66	
	학교생활 예 절	도시	2.93	.46	0.27
		농촌	2.92	.50	
	사회생활 예 절	도시	2.75	.53	-1.96*
		농촌	2.85	.56	
	기본예절	남학생	2.56	.60	-2.47*
		여학생	2.70	.54	
성 별	가정생활 예 절	남학생	2.51	.66	-4.70**
		여학생	2.79	.59	
	학교생활 예 절	남학생	2.89	.51	-1.68
		여학생	2.96	.45	
	사회생활 예 절	남학생	2.72	.58	-3.23**
		여학생	2.89	.50	
	기본예절	취업	2.64	.57	0.47
		비취업	2.61	.57	
	가정생활 예 절	취업	2.67	.63	0.65
		비취업	2.62	.66	
어머니 취업 여부	학교생활 예 절	취업	2.97	.48	0.34
		비취업	2.92	.48	
	사회생활 예 절	취업	2.82	.56	0.66
		비취업	2.78	.56	
	기본예절	동거	2.62	.57	-0.27
		비동거	2.63	.57	
	가정생활 예 절	동거	2.65	.64	0.057
		비동거	2.65	.65	
	학교생활 예 절	동거	2.88	.55	-1.25
		비동거	2.95	.45	
조부모 동 거 여 부	사회생활 예 절	동거	2.84	.57	0.94
		비동거	2.79	.54	

* p<.05 ** p<.01

<표 5>에서와 같이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기본예절과 사회생활예절의 실천정도가 높았다. 이는 도시의 중학생이 농촌의 중학

생보다 예절을 더 잘알고 실천하였다는 임동일(1986)의 연구와 상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상치되는 결과의 논의는 지역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동일(1986)은 목포시와 무안군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서울시와 전남의 면단위 이하의 지역을 조사하였다. 전자의 연구보다 본 연구가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차이를 뚜렷이 구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동일(1986)의 연구결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절과 사회생활예절 실천은 농촌 아동이 높았던 것에 비해, 가정생활예절과 학교생활예절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예절을 제외한 기본예절, 가정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 모두에서 여아의 실천도가 남아보다 높았다. 이는 많은 연구(김정애, 1992; 임동일, 1986)에서 보고하는 결과와 일치하므로, 여아가 남아보다 예절실천정도가 높다는 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가정의 자녀의 예절실천정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어머니의 자녀의 예절실천정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아동이나 같이 살고있지 않은 집의 아동이나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예절교육정도는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보다 낮으나(연구문제 1-2의 연구결과) 예절실천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은, 조부모가 예절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 실천도와의 상관

1) 예절영역별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실천도와의 관계

모의 예절교육 정도가 높으면 자녀의 예절 실천 정도도 높은지를 알기 위해 교육정도와 실천정도의 상관을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실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6> 예절영역별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실천도와의 관계

		아동의 예절실천도				
		기본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예절	예절	예절	예절	
부 모 의 예 절 교 育 정 도	기본예절	.27***	.22***	.12**	.16***	
	가정생활 예 절	.21***	.30***	.17***	.16***	
	학교생활 예 절	.17***	.21***	.20***	.18***	
	사회생활 예 절	.19***	.19***	.20***	.16***	

** p<.01 *** p<.001

2) 예절내용별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실천도와의 관계

부모의 예절교육과 아동의 예절실천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예절영역별 예절내용에 대해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의 예절실천정도의 상관을 구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있듯이 기본예절은 '서있는 자세'와 '바르게 걷는 자세와 신발 바르게 신기'를 제외한 모든 예절내용에서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정도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정생활예절에 있어서는 모든 예절내용에 있어 아동의 예절실천이 부모의 교육정도와 상관이 있었다. 학교생활예절에서는 '학교 준비물 잘챙겨가기', '학교 교가·교훈 모두 외우기', 그리고 '하교후 곧바로 집에 오기'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정생활예절의 모든 내용에서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이 상관이 있었던 것에 비해, 학교생활예절은 세가지 내용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음은 예절교육이 예절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교예절은 교사의 가르침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예절내용별 부모의 예절교육정도와 아동 예절실천도와의 관계

예절영역	예 절 내 용	상관계수
기본예절	서있는 자세	.08
	어른과 함께 앉을 때의 자세	.18**
	바르게 앉아 공부하는 습관	.21**
	바르게 걷는 자세와 신발 바르게 신기	-.02
	방·화장실 출입할 때의 자세	.18**
	칼·송곳 등 물건을 남에게 줄 때의 바른태도	.14**
	부모님께 존대말 사용하기	.25**
가정생활예절	집안 어른께 아침 인사하기	.28**
	외출 시 반드시 웃어른께 말씀드리기	.18**
	심부름하는 올바른 태도	.16**
	음식 먹을 때 부모형제 뭇 쟁겨 놓고 먹기	.19**
	자기방 일부자리 개기	.35**
	이닦기	.26**
	어른과 함께 하는 식사예절	.30**
학교생활예절	찾아오신 손님 신발정리하기	.31**
	자기 옷 올바로 입고 정리정돈하기	.06**
	선생님 흥·별명 부르지 않기	-.01
	학교 준비물 잘 챙겨가기	.17**
	학교 교가·교훈 모두 의우기	.16**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05
	친구 이야기 중에 끼어들지 않기	-.00
사회생활예절	도시락의 음식 남기지 않기	.04
	학교 후 끈바로 집에 오기	.16**
	공책 등 학용품 아껴쓰기	-.03
	집에 온 친구를 어른께 올바로 소개하기	.13**
	이웃어른께 공손히 인사하기	.15**
	집밖 끌목길 청소하기	.29**
	버스·전철 속에서 소란스러운 행동 하지않기	-.05

* p<.05, ** p<.01

끝으로 사회생활예절에서는 여덟가지 내용 중 다섯가지에서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집밖 끌목길 청소하기'이다. '집밖 끌목길 청소하기'는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에서 가장 낮은 예절내용이었다(<표 2>와 <표 4> 참조). <표 7>에서 그것은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이 가장 높은($r=.29$) 사회생활 영역의 예절이었다. 즉, 부모나 아동 모두 집밖 끌목길을 청소하는 것은나 실천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부모가 끌목길 청소를 가르친 아동은 그것을 실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부모의 교육이 아동의 예절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예절교육과 아동의 예절실천과의 관계를 알아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부모가 예절을 어느정도 가르치며, 아동은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을 도시와 농촌 지역별로 비교하여 도시화와 전통예절의 경시를 검증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절교육 차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를 봄으로써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의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는 학교생활예절을 가장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었고 기본예절을 교육하는 정도는 낮았다. 아동이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 역시, 학교생활예절이 가장 높았고 기본예절이 가장 낮았다. 자신을 관리하는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조심함으로써 자기를 수양하는 기본예절의 교육과 실천이 약하며 학교에서의 예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학업을 중시하는데 비해 인격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 사회와 가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에서의 예절의 강조와 실천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내적인 면을 둑는 것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둘째, 도시 부모가 농촌 부모보다 학교생활예절을 강조하여 교육하였으나 도시 아동의 학교생활예절 실천은 농촌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기본예절과 사회생활예절에서의 실천정도가 높았다. 도시 부모가 농촌 부모보다 예절교육을 강조하지만 아동의 예절실천은 농촌 아동이 오히려 높았던 것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예절과 사회생활예절에서 농촌 아동의 실천이 더 높았음은, 부모의 교육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동일(1986)의 결과와 상치되었는데, 그 연구는 도시 중학생이 농촌 중학생보다 예절을 더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치되는 결과를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연구는 중학생 대상이었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이었으므로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으나, 2,3년 차이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연구는 목포시와 무안군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는 서울시와 전남의 면단위 이하의 지역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뚜렷이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도시와 농촌의 비교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예절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예절 실천 정도가 높았다. 이는 다른 연구들(김정애, 1992; 임동일, 1986)과 같은 결과였다. 한편,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기본예절을 가

르치는 정도가 높았으나, 아동의 예절실천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의 예절실천과 상관이 적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부모와 둘거하지 않는 가정에서 학교생활예절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었으나 아동의 예절실천도는 차이가 없었다. 임동일(1986)의 연구에서 조부모가 있으나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의 아동이 함께 사는 가정의 아동보다 예절의 태도가 더 좋았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조부모와의 둘거 자체는 아동의 예절실천과 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의 예절교육은 아동의 예절실천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정생활예절에서는 모든 예절내용에서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의 상관이 높았으며, 학교생활에서는 상관있는 예절내용이 가장 적었다. 이는 예절교육이 예절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의 예절교육이 가정생활예절 실천에 영향을 준다면 학교생활예절은 교사의 예절교육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생활예절에서 '집밖 골목길 청소하기'는 부모의 교육과 아동의 실천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교육을 받은 아동은 골목길 청소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예절교육이 아동의 예절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이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아동의 예절교육을 위해 제안할 점은 먼저 기본예절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이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올바로 함으로써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예의 기본이므로 이를 교육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관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 관리의 바탕이 될 것이므로 이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예절실천은 교육의 영향이 크므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모두 예절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부모가 예절교육을 적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아동보다 도시 아동의 예절실천이 낮은 것은 사회의 영향으로 보이므로, 사회의 예절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관찰조사가 아니라 질문지조사였으므로 질문지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조사된 부모의 교육정도와 아동의 실천정

도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의 의문을 놓는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상태를 환경적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지역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상태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예절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며,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예절교육과 생활지도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권오순(역)(1982). 예기, 홍신문화사.
- 2) 김정애(1992).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류점숙(1991). 조선후기 동몽교육의 내용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박민규(1994). 국민학교 예절교육내용 및 지도실태분석.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1993).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성균관출판부.
- 6)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1994). 어린이 생활예절. 성균관출판부.
- 7) 성백효(역)(1994).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 8) 이정덕·송순(1993). 「소학」에 나타난 동물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1, 157-168.
- 9) 이애선(1980). 이덕무의 교육론과 현대 도덕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임동일(1986). 농촌과 도시 중학생들의 가정예절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장경선(1993).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실태에 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2) 정동화(1979). 예절. 형설출판사.
- 13) 조관일(1994). 어린이 예절백과. 바른사.
- 14) 최기호(1995).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최재선(1984). 예절교육 특설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충남교육청(1992).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7) 한국여성교양학회(편)(1991). 생활예절. 양서원.
- 18) Spranger, E.(1964). Pedagogische perspektiven. Heidelberg: Quelle und Mayer.